



오리 기르기 기본수칙(基本守則)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기금과 장병귀 박사

1. 관리수칙(管理守則)

오리는 다양한 환경하에서 생존이 가능한 기금류로서 현대사회에서는 대규모의 집단화된 사육방식에 의해 길러지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집단 사육방식은 서구사회에서 유래하였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동양에서 더욱 집단화되어 있다.

이러한 집단사육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오리의 건강관리로서 관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관리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극한환경(더위, 추위 등)과 외부 침입자로부터 보호하라.
- 2 깨끗하고 습하지 않은 휴식공간을 확보하라.

- 비록 활동공간이 물이나 습이 많은 곳에서 이뤄진

【표 1】 오리에서 발생하는 주요 질병

질병명	세균성 질병			바이러스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오리패혈증	살모넬라증	대장균증	오리간염	곰팡이성 폐렴
원인체	리메렐라균	살모넬라균	대장균	피코나바이러스	아스퍼질루스
빈발주령	3~5	1~2	1~5	3주령 이하	3주령 이하
주요증상	눈물, 콧물, 호흡기증상, 녹색설사, 신경증상	설사, 침울, 식욕저하, 음수량 증가, 신경증상	제대염, 운동실조, 설사	운동실조, 신경증상(사경, 다리마비)	침울, 험떡거림, 독소중독시는 신경증상

다 해도 휴식공간이 건조하여야 깃털을 말리고 체온을 유지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3 깨끗한 물을 공급하라.

- 물속에 있는 세균이나 독소들은 위험하다. 수영을 위한 물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혹서기에는 유익하게 작용한다.

4 사료는 하루 필요 영양소를 정확히 급여하라.

5 적절한 점등을 실시하라.

- 특히 종오리의 경우는 더욱 중요하다.

6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라.

2. 건강관리(健康管理)

오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단계는 최초로 발생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차단하느냐에 따라 이환율과 폐사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음 사항은 집단사육 방식에서 취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며, 질병예방을 위한 단 하나의 계명을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지런하라』이며,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1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라.

- 외부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질병요인의 근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생축의 유입

은 현재 증상은 없지만 잠재적인 질병발생 요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타 조류 및 동물들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꼭 생오리가 들어와야 하는 경우라면 유입 전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안전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후 들여와야 한다.

양계 농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 차량, 기구 등에 대한 차단은 당연한 조치이며 번거로운 사항이지만 사육장을 옮겨 다닐 때 옷과 신발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전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라.

- 많은 경우에 있어서 초기 면역 형성은 오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3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라.

- 스트레스는 질병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킨다.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사육시설, 관리상태, 환기 및 영양관리 등이 있다.

3. 주요질병(主要疾病)

【표 1. 오리에서 발생하는 주요 질병】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호에서는 오리의 세부적인 주요 질병에 대해 알아보니다.